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진봉 스님

“삼론의 대승반야공관 설파”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시기, 불교는 <중론(中論)> <십이문론(十二門論)> <백론(百論)>의 삼론이 근간을 이뤘다. 특히 삼론의 근본인 중론은 대승반야공관(大乘般若空觀)이 야말로 불교의 연기, 무아, 중도를 가장 바르게 실현한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진실을 알지 못한 채 교리와 개념에 집착·분별·회문하는 것을 파헤쳐 바른 지표를 제시했다. 이후 생겨난 많은 종파는 이러한 중

고, 삼론종풍을 선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 총본산에 금강계단을 세워 출가도수계를 단일화했으며, 출가자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창종 초기부터 연 2회 종도 교육연수를 활발하게 펼쳐 스님·신도들이 종단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삼론종도로서 자긍심을 갖게 했다. 2006년도에는 길장 스님의 <삼론현의>를 일반 신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각 사찰 및 신도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삼론종단 신도들이 2년에 한번 보살계단에서 수계를 받으며, 환경지킴이 서약을 하는



진봉 스님

역사 속 삼론종 가르침 되살리고자

300여 개 사찰서 수행과 포교 매진

해봉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중도화합을 이루고, 역사 속 삼론종의 가르침을 되살리고자 1989년 4월 대한불교삼론종(종정 해봉)을 창종했다. 현재는 총본산 우암정사(총부 중주사)를 비롯한 전국 300여 개 종단 소속 사찰에서 450여 명의 스님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삼론종은 창종 후 종단 뿌리 찾기의 일환으로 중국 서하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캄보디아 벵트 남 등의 국가와도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 서하사는 삼론종에 정통한 고구려 승랑 대사가 중국에 건너가 법을 설파한 '삼론 제일발원사찰'로 평가받는다. 본 종단은 종통을 바로 세우

것도 삼론종풍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 방안이다. 지구온난화 등 전지구·인류적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회문제 해결에도 보다 활발한 행보를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삼론종에서는 각 사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한국문화 그 자체가 된 불교는 시대정신을 깨달아 시대와 증생의 아픔을 함께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앞으로 대한불교삼론종은 보다 많은 사회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총무원 (02) 937-0343 정리=김진성 기자

“천태종승 조선불교 주도”

황인규 교수, 천태불교학술대회서 주장

고려말 조선초 격동기, 천태종승의 활약이 오늘날 한국불교를 이끈 원동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천태종 종학연구기관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11월 15일 서초동 관문사(부주지 세운)에서 2008년도 천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사회부장 경천 스님, 교육부장 세운 스님, 권기중 원장(원각불교사상연구원), 서윤길 명예교수(동국대), 정병호 교수(동국대)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인규 교수는 '여말선초 천태종승의 동향'에서 '불교여말선초에 이르러 보수화되고 뚜렷한 활동이 사라졌고 알려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사회개혁이나 민중 구제를 펼치며 시대적 대응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동국대)는 "고려말 의선·회암·나암·요원 스님 등 천태종승으로 이어지는 조인규가(趙仁規)의 승려 등이 천태종계를 주도하며 백련사 결사정신을 선양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백련결사는 1216년 천태종승 요선 스님을 중심으로 시작돼 불교의 자각과 반성 등을 추구한 신앙결사다. 이어 그는 "고려말 신조 스님이 이성계의 신사회건설 및 왕조창업에 뜻을 같이하면서 조계종 무학 스님은 왕사로, 천태종 공암 스님은 국사로 책봉됐다"고 말했다.

황인규 교수는 "유생들에 의해 주살된 내용 스님처럼 천태종승 행호도 순교했다"면서 "행호의 순교는 허응당 부우와 환승지인으로 계승돼 오늘날 불교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조선 태종-세종대에 걸친 유례없는 불교 탄압 속에서

행호 스님은 백련결사 본산인 백련사를 중창하는 등 고려말 생활로 추앙받던 내용 스님과 비견됐다"며 "이러한 천태종승의 노력으로 불교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미 교수는 주제발표 '신라 승려들의 여성관'에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등 여왕이 통치하던 신라에서 여왕의 치세가 사라진 것은 불교의 영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에는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지 않았으나 부처님 입멸 후 비구 중심 교단에 의해 가부장적이던 인도사회의 영향을 받았다"며 "신라 승려들도 경전에 근거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주장을 폈다"고 설명했다.

불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는 주장은 오장설(五障說)과 여성의 성불 문제, 어머니신앙에서 극락에 여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모두 여성의 성불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들이다. 오장설에 따르면 여성은 제석전, 마왕, 범천왕, 전륜성왕, 부처가 될 수 없다.

김영미 교수는 "불교수용 초기에는 여왕이 존재하던 시기로, 불교를 믿는 목표가 성불보다 삼악도(지옥·아귀·축생)를 떠나거나 복을 비는 것이었다"며 "승려들에 의해 오장설이 처음 신라에 소개됐을 때 사람들은 여성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보다 전륜성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말했다.

선덕여왕만 해도 오애설이 신라 사회에 알려지기 전으로 석가모니에 비견됐다. 아버지 진평왕은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부인으로 칭해질 정도였다. 진덕여왕은 키가 길고 자, 손을 내려드리면 무릎 아래까지



'여말선초 천태종승의 동향'을 발표한 황인규 교수

달을 정도였다고 해 부처의 32상 중 하나를 갖춘 것으로 기록됐다.

김영미 교수는 "647년 비담은 반란을 일으키며 '여자 임금이나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문체 삼았다"며, "여왕이 재위했던 시기는 승려들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전"이라며 "오애설 등이 유행하면서 여왕의 통치는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명삼(동국대 박사과정)씨가 '근본불교의 깨달음', 박사연(동국대 강사)씨가 '화엄경' 여래광명각품의 주석학적 이해, 오지연 연구원(원각불교사상연구원)이 '법화영험전'의 신앙유형 고찰, 이종수(동국대 박사과정)씨가 '조선 후기 삼문수업의 성립연구' 등을 발표했다.

한편 학술발표 시작 전 정산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욕망이다. 탐욕을 해결하지 않는 채 나오는 정책은 일시적 처방일 뿐"이라 말했다.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상(無常)과 무아(無我), 고(苦)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불자들이 원력과 정진으로 숭신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 강조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대한불교무량종 혜안 스님 종정 추대

대한불교무량종은 11월 10일 제 17차 정기중앙총회를 열어 혜안 스님(종정권한대행·총무원장)을 종정추대했다. 총무원장에는 중앙총회 의장 보경 스님(보경사 주지)이 선임됐다.

혜안 스님은 세계불교대회 이사,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 남북불교도교류추진위원회 중앙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사)대한불교진흥총연합회 부총재, (사)세계불교대관도연맹 총재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총무원장에 선임된 보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량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정스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생각으로 종도



혜안 스님, 보경 스님

화합과 종단 발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천태 청년 하나돼 미래로”

천태종 중앙청년회 제19회 단합대회 성료



제19회 천태종 중앙청년회 단합대회 축하공연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청년 불자를 위한 화합의 장이 열렸다.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오순환)는 11월 15~16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제19회 전국 청년회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천태 청년, 하나돼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법회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교무부장 유정 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기념법회 및 축하공연, 16일 경주 기림사, 골굴사, 갑은사지 등 유적지 답사도 진행됐다.

정산 스님은 기념법회 법어에서 "활기가 넘치고 씩씩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천태종이 현대·생활·대중불교 지향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며 "각 지역 청년회원들이 자

부심과 큰 뜻을 품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찾는 길이 대승"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청년회 회원들이 권역별로 매년 2회씩 법회를 열어 화합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순환 중앙청년회 회장은 개식사를 통해 "이번 단합대회는 각 지역 청년회가 그동안 정진해 온 노력을 격려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가 청년회 활성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하공연에는 △경주 청강사 사물놀이 △김해 해상사 색소폰 연주 △나타 대성사 웅원단 △서울 명화사 난타 △초청가수 김성민(K2)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나라안정기원법회 봉행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회장 의륜)는 11월 17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나라안정기원 및 불교진흥대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제5기 임원 추대식을 겸해 봉행된 이번 법회는 총재 인왕 스님(한국대승불교여래종정), 연합회 소속 각 종단 종정·총무원장스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계는 난국에 처할 때마다 불법을 숭신(崇信)해 복을 구하는 기치아래 불교진흥을 진작했다"며 "2천만 불자가 나라안정과 불교진흥을 꾀하는 부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창종기념법회

불교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는 10월 25일 삼화총림 백화사에서 창종6주년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혜인 스님을 비롯한 종단 소속 스님 100여 명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법회에서 혜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창종 5개년 계획 중 1단계가 마무리 됐고, 이제 새로운 불교문화 창조와 더불어 수행가풍의 확립, 교육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

올겨울 추위, 난방비 걱정 끝!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나산 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나산 원동형 고효율/카본히터
사용장소/공장용·업소용·농업용·사무실용

강력난방
국내생산
1년간 A/S

NS-76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2.5Kw, 약: 1.2 Kw,
· 회전기능: 좌우 90도
· 높이조절: 상하, 135cm ~ 100cm
· 중량: 약 8.5kg
· 크기: 반사경(60cm) 높이가: 135cm

NS-78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1.8Kw, 약: 900W,
· 회전기능: 좌우 90도
· 높이조절: 상하, 135cm ~ 100cm
· 중량: 약 6.5kg
· 크기: 반사경(54cm) 높이가: 135cm



NS-7000



NS-7200

● 산업용(공장, 기업체) 2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 67.90 X 2.5Kw X 8시간 = 1,358원
(안전인증번호) NS-7600 : HH07142-2008D
특별할인가 : 198,000원 (세탁비 4000원 소외사업자)

● 상가용(15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 67.90 X 1.8Kw X 8시간 = 978원
(안전인증번호) NS-7800 : HH07142-1004C
특별할인가 : 178,000원 (세탁비 4000원 소외사업자)

● NS-7200 (적용면적: 5평형)
열량 / 1.8Kw · 사이즈 / 355 X 660mm · 무게 / 3.5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 67.90 X 1.8Kw X 8 = 978원

● NS-7000 (적용면적: 10평형)
열량 / 2.9Kw · 사이즈 / 355 X 660 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 67.90 X 2.9Kw X 8 = 1,575원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나산전기난로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 X 1.8Kw X 8 = 978원

나산전기 난방이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구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을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방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 / 중국산과 비교불허!

- 북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을데워 실내가습효과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나산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주 사용처 : 사무실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 / 주점 / 팬션)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强者! 나산전기히터!